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2014 갑오년 새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 이어 대장암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는데 이어 12월 19일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본원은 평가영역별 결과에서 '수술 전 정밀검사 시행 비율'과 '국소 임파절 절제 및 검사율'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100점을 달성하였고, 입원일수, 진료비 및 예측사망률을 비교하는 2013년 종합결과에서 다른 기관보다 우수한 결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채석래 병원장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는 교직원의 노력이 유방암과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료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고양시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봉사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12월 28일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양시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자비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시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민호 행정처장, 연우회 임원진과 회원 약 30명이 참석하여 고봉동을 포함한 인근지역 10가구에 3,000장의 연탄을 지원하는 봉사를 했다.

연우회에서는 앞으로도 의료봉사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꾸준한 자비행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고 이웃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03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약학대학과 '병원 실무실습'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은 24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과 필수 실무실습교육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채석래 병원장과 조정숙 학장, 김민호 행정처장, 김옥선 약제팀장 등이 참석하여 양 기관이 약학교육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우수한 전문 직능 인으로서의 약사양성을 위해 상호 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약대 6년제의 시행과 더불어 2014년부터 시행될 본교 약학대학 6학년생들의 체계적인 실무실습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04 '동국대학교 자산경영법무 최고위 과정 제3기 원우회' 저소득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

동국대학교 자산경영법무 최고위 과정 제3기 원우회는 전년도 12월에 이어 올해 12월 16일에도 저소득 환우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3기 원우회 조남인 회장은 "작년 환우 돕기 후원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우들을 도울 수 있어 많이 기뻐다"며 "올해에도 회원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채석래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부를 실천한 원우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원우회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5 법당, 동지 맞이 팔죽 대중공양

법당에서는 12월 22일 동지를 맞이하여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동지법회를 열었다.

법회가 끝난 후에는 준비한 팔죽 1,500인분을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환자 및 내원객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특히, 팔죽 대중공양에 유은혜 국회의원, 최성 고양시장, 소영환 시의원, 김경희 시의원이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많은 사람의 자비봉사 덕분에 이날 법당에서는 동지 추위도 녹이는 훈훈한 시간이 되었다.



06 원무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점심 봉사

원무팀 직원 11명이 참석하여 12월 21일 고양시 일산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에게 점심을 지원하는 뜻 깊은 자원봉사를 했다.

노인복지관에서 그릇도 나르고, 국수를 삶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과 따뜻한 정을 나눴고, 봉사하는 동안 어르신들이 살갑게 해주어 즐거운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치유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봉사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치유 받고 돌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원무팀은 11월 30일 12명이 참석하여 1차 점심 봉사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시행한 봉사활동이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하는 단발성 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07 201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소개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관련한 엄격한 규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과다 수집·이용하고 있어 해킹·유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올 7월 30일 의결되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민감한 정보가 많은 의료기관인 만큼 교직원 개개인이 개정안을 인지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원칙 수집금지

지금까지 개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며,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기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 강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과징금 5억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Tip+

13월의 월급통장,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세 번째 시간 >>>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공제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게 공제금액(인적공제, 물적공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총 급여 3%)와 신용카드 등(총 급여 25%)은 총 급여에서 지출초과금액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 급여가 비슷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지출금액이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다.

알 리 미

2014년 시무식 일시 : 2014년 1월 2일 (목) 08:00 | 장소 : 5층 대강당